

# 국승규 원광대 명예교수, 신간 발간

‘위대한 깨달음 내안의 신성 자각과 신의 의식’... 체험으로 구축한 독특한 세계관 책에 담아

“자신의 경험을 그리고 깨달음을 타인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인간은 각자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의식 구조에 따라서 같은 세상이지만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같은 공간이면서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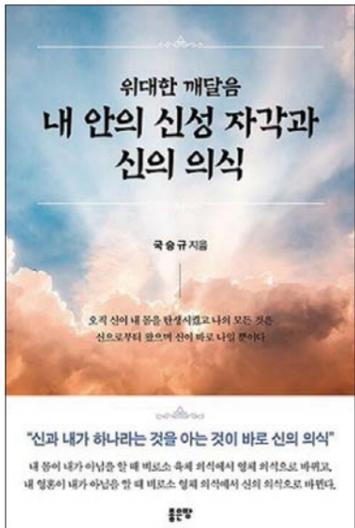


원광대학교 국승규 명예교수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남들이 쉽게 겪지 못하는 체험으로 구축한 독특한 세계관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그가 쓴 ‘위대한 깨달음 내안의 신성 자각과 신의 의식’은 고석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책을 펴내며 국 교수는 “마치 정다신이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쓰는 기분으로 썼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랫동안 일인을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던 저자는 명상을 통해 평안을 찾고 수많은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했던 두통을 고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도와 명상에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 안에 신성, 즉 성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높아짐은 물론 우리의 의식을 신의 주파수에 맞추어 거기에 맞는 강



한 믿음이 올 때 머릿속의 생각이 곧 현실이 되는 삶을 살게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죽어서가 아닌 현재 이곳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의 질서이자 우주의 원리를 알리고자 펜을 들었다. 예수의 가르침 또한 바로 이것이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의 뜻이 중세 이후에 변질된 것이라

고 그는 설명한다. 또한 예수의 가르침은 불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로마 황실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면서 불교와 크게 다른 것처럼 변질되었고, 이로 인해 종교적 갈등과 분쟁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 이러한 역사적 질곡의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지면 종교적 분쟁과 갈등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국 교수는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소수의 사람 일지라도 필자가 평생에 걸쳐서 겪었던 방황과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한, 즉 고급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면서 “우리의 생각의 밀도, 즉 강한 믿음 또는 신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의식의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바로 기도와 명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 교수는 경제학 박사로서 원광대 경영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임 중에 경제학실사와 서양 경제사를 강의했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다.

1985년부터 전국에 있는 유명한 무당들 200명 정도를 만나고 다니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영혼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계기로 국 교수는 ‘내 영혼이 뜨면 어디로 갈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사람들’, ‘하늘의 계시와 사명’, ‘논리로 풀이한다.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독생자인가’ 등의 책을 펴냈다.

/장은성기자

# 우석대 박문철 교수 연출 ‘보드랍게’ 23일 개봉

위안부 피해자 故 김순악 할머니 삶 다룬 휴먼 다큐멘터리

우석대학교 박문철 교수(미디어영상학과)가 연출한 휴먼 다큐멘터리 ‘보드랍게’가 오는 23일 전국 30여 개 극장을 통해 개봉한다고 밝혔다.



박문철 교수와 (사)정신대하루미와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제작하고 (주)인디플러그가 배급하는 영화 ‘보드랍게’는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순악 할머니의 전쟁 같은 삶을 말하고 그림으로 이어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냈다. 기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작품들을 경유해 더욱더 새로운 시선과 얼굴, 질문을 던지며 관객 저마다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는 작품이다.

영화 ‘보드랍게’는 ‘마이 플레이스’(2014년)와 ‘파란비효과’(2016년)에 이은 박문철 교수의 3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로,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과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아름다운 기러기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우수 영화제에서 일제감치 주목받은 수작이다.

특히 영화 ‘보드랍게’는 해방 후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당하며 삶이 곧 전쟁이던 시간을 조명함으로써, 일본의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지 못한 한국사회의 문제를 짚고 있다.

나아가 주인공 김순악 씨의 삶을 입체적이고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방식을 택해 과거의 여성 김순악과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 여성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으며 공



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문철 교수는 “기존의 위안부 영화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며 “고(故) 김순악 할머니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영화는 보기 힘들다고 지레 생각하기 쉬운데, 김순악 할머니의 매력에 푹 빠져들다 보면 웃음과 감동, 더 나아가 공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우석대학교에 부임한 박문철 교수는 영상 제작과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며 학생들과 호흡하고, 학교 밖에선 영화감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장은성 기자

# 김제시, 문화재 방재안전 유공 기관표창

김제시는 문화재 방재안전 분야의 선제적 대응 유공을 인정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 상은 문화재 안전관리와



방재능력 강화 실천에 앞장서는 기관, 개인에 문화재청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수여해 온 상으로 오는 10일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아 온라인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시는 관내 소재한 국가·도·시 지정 문화재 92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긴급보수 예산 160백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피해발생 사전차단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 안전점검 시에 드론을 활용하여 문화재 관리 시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 방재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문화재 재난 대응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매년 실시하여 재난 상황 대응 및 안전의식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또한 이번 수상은 김제시가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지자체 중 문화재 방재안전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의 발전과 성장을 고민하며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靑 “한복은 우리 전통 의복 문화”

“재론 여지 없어” “외교부 등 관련 부처서 동향 면밀히 주시”

청와대는 7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으로 표현돼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한복이 우리 전통의 의복 문화라는 것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한복 논란’ 관련 발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에서는 땀기머리를 하고 한복으로 보이는 분홍색 치마와 흰색 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중국 내 소수민족 대표 중 한 명으로 출연해 국기 전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행사에 한복이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는 중국이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 일부로 치부하는 이른바 ‘문화 공정’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도 한복소리로 정부의 강한 대응을 촉구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고, 10위권 안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이데 자칫 소수 민족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개막식을 통해 무엇을 알리려는지는 이해하겠지만 이웃 국가 한국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 장관은 중국 정부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필요성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



의뢰 군민에게 힘이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고창군의회